

미래창의평생교육원 작품 전시회

꿈을 향해 몇 번이라도 덧그리며

기초데생과 유화

기초소묘와 수채화

2025. 6. 24.-6. 29.
목원대학교 전시관(VS235)

| 주최 | 미래창의평생교육원

| 후원 |  목원대학교



미래창의평생교육원 작품 전시회



미래창의평생교육원 미술아카데미 작품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인 ‘꿈을 향해 몇 번이라도 덧그리며’는 예술가로서의 여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장면과 감정을 화폭 위에 그려내고,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덧그리는 과정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작품에는 작가의 고뇌와 열정, 작가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도 이 작품들을 통해 각자의 마음속 이야기를 떠올려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래창의평생교육원 미술아카데미는 실기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수준 높은 교수진을 바탕으로 수강생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존중하며 예술적 표현력을 길러왔습니다. 그 결실로 이번 전시에서 단순한 미술작품을 넘어 작가들의 시선과 철학이 담긴 진솔한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창작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애정과 열정으로 수강생들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시회가 예술의 감동과 여운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작품 속 이야기들이 관람객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강생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빛나는 창작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목원대학교 총장 이희주



가만히 덧그린 선 위에 또 한 번 마음을 엮어보는 이 계절, 작품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 열 수 있어 참으로 설레고 반갑습니다.

‘꿈을 향해 몇 번이라도 덧그리며’라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순간마다 다시 붓을 들고, 희미해진 색 위에 새로이 빛을 더해온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오늘 이 공간에 펼쳐졌습니다.

작품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선과 색을 지우고 덧그리며 반복한 그 시간들은 단순한 창작의 과정을 넘어, 자신의 꿈과 삶을 다시 써내려 가는 예술가적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강생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왔는지 지켜보며 뜻깊은 나날을 보낼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창작의 기쁨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오늘을 준비한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따뜻한 시선과 조언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전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영감 하나로 남기를, 그리고 다시금 꿈을 덧그릴 용기를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목원대학교 미래창의평생교육원 원장 박훈식



미래창의평생교육원 작품 전시회

Future Creative Lifelong Education Center Exhibition

목 차

Contents

기초데생과 유화 06
지도교수 - 윤 양 숙

기초소묘와 수채화 11
지도교수 - 맹 인 옥

기초데생과 유화

지도교수 _ 윤 양 숙



김동식 | 축복25 | 45.5x37.9cm | 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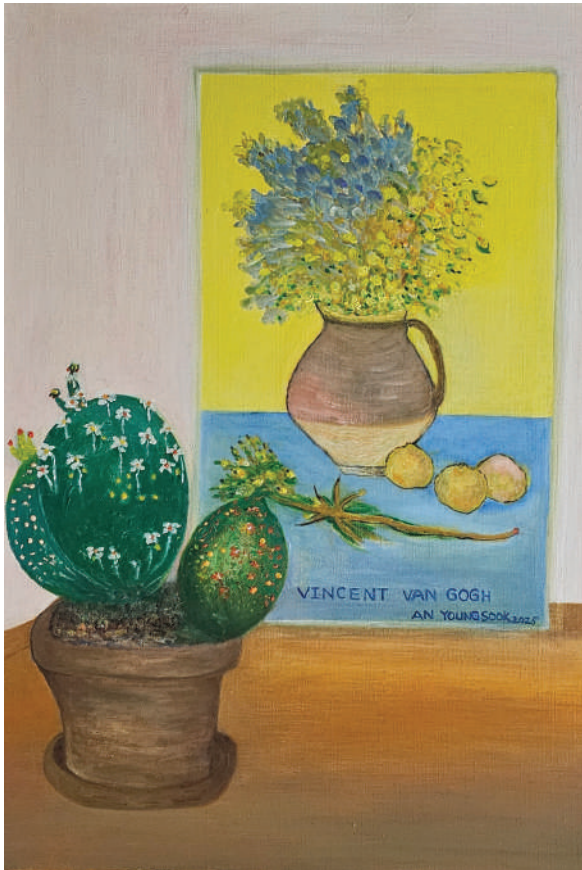
김태련 | 행운을 찾으세요 | 53X40.9cm | 유화



김미경 | 무대에 오르기 전 | 37x 45cm | 유화



김서현 | 안식처 | 20F | 유화



안영숙 | 내 마음의 정물 | 15M | 유화



윤치왕 | 공존 | 40.9x31.8cm | 유화



이미경 | 소통(가을) | 35x45.5cm | 유화



이순희 | 소녀 | 10p | 유화



이영란 | 추억 | 38x46cm | 유화



이재정 | 용소초2-3 이지산 | 91x73cm | 유화



홍향미 | 해바라기 | 40.9x31.8cm | 오일 캔버스



장윤이 | 감정의 폭풍 | 35x27.3cm | 유화물감



정혜숙 |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 | 53X40.9cm | 오일

기초소묘와 수채화

지도교수 _ 맹 인 욱



강종태 | Don't Forget '93 Mostar | 53x40.9cm | 수채화



구미선 | 순수 | 53x45.5cm | 수채화



권혜숙 | 할슈타트 | 50x65cm | 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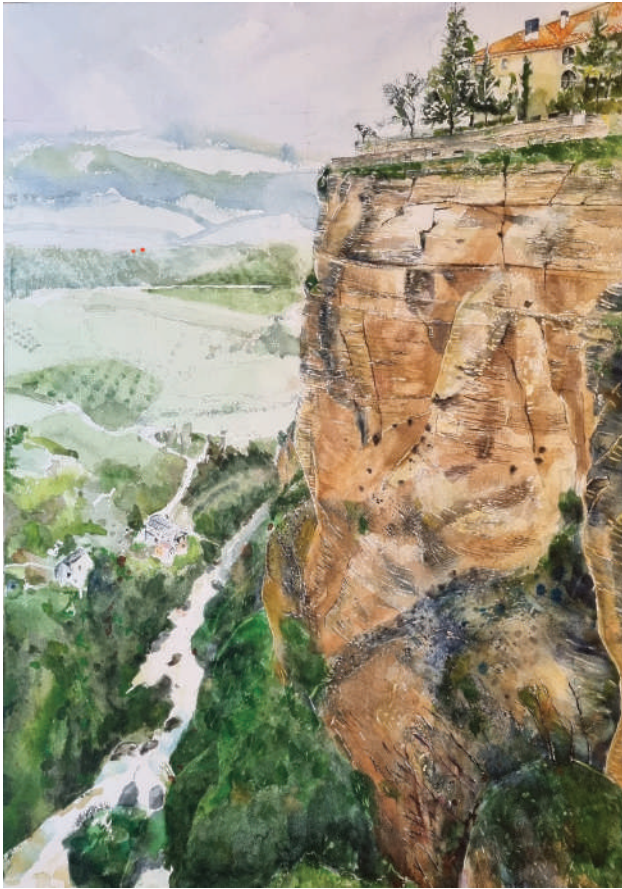
백보흠 | 풍경 | 53X40.9cm | 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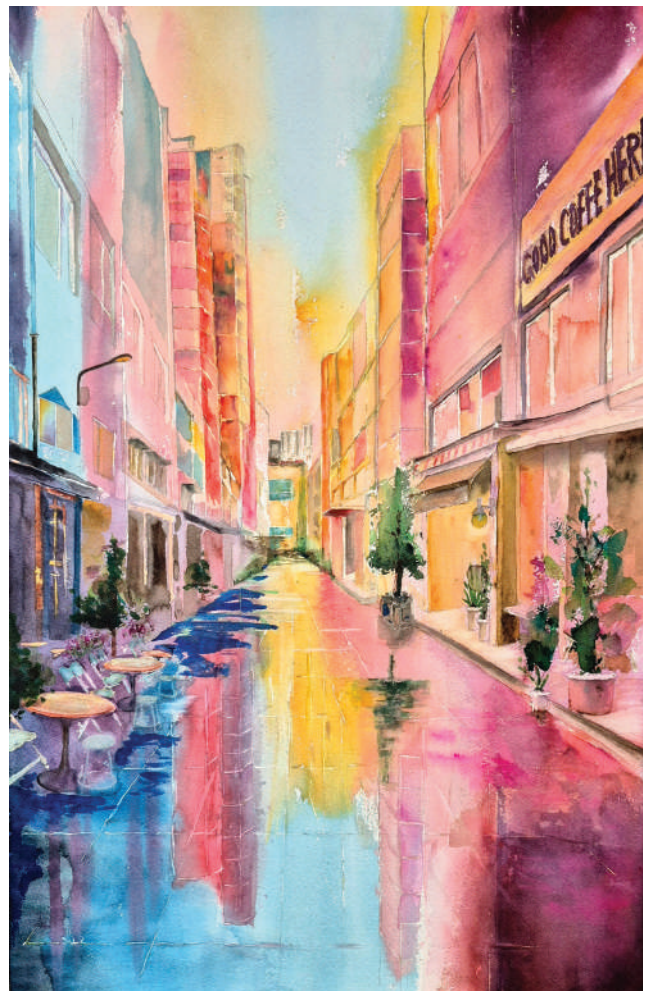
송경화 | 산토리니 | 40.9x31.8cm | 수채화



유진영 | 초목 | 52x72cm | 수채화



홍기숙 | 론다개폭 | 45x65cm | 수채화



이영란 | 나의 도시 | 50x76cm | 수채화



임길영 | 가을축제 | 41x53cm | 수채화



정덕영 | 기와 | 60x46cm | 수채